

April 08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 마태복음 27:46; 요한복음 3:16-21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그때 해가 빛을 잃고 세상이 어둠에 덮였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히 4:15, 7:26-27; 롬 8:3). 그분과 상관없는 추악한 죄들,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는 완전한 고독과 고립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죄의 삶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모든 빛을 탕감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롬 5:1).

그럼에도 이 삶과 생명에는 끝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돌이김’의 시간, ‘거듭남’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분기점으로, 죽음의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생명의 삶을 살 것인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애초에 출발선에도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어 출발선에 세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풋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 나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빌 3:14).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나아갈 길 또한 열렸습니다. 흑암 속에 길이 보이지 않던 인생, 두려움으로 주저앉던 인생에 빛이 비치었습니다(요 8:12). 빛이 비치면 어둠은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 길로 걸어가면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스승이 되어 길을 가르쳐 주시고, 걷는 법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요 14:6; 시 119:105).

십자가와 함께 새롭게 출발
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 ① 단절에서 화평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 ② 나의 삶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 있습니까?